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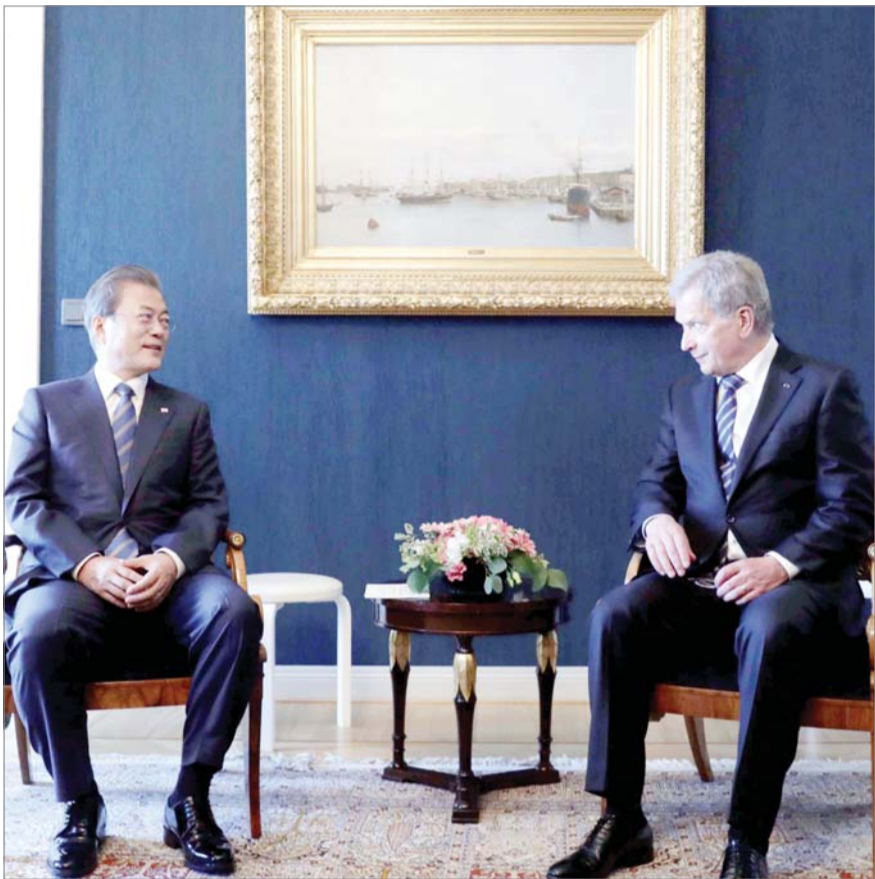
[해설] 기금운용 평가서 최하위 성적표 위기의 국민연금 03



Economy

코스피	2099.49 (+27.16)	코스닥	721.14 (+4.61)
금리 (미국 3년)	1.53 (0.00)	환율 (원/달러)	1185.20 (+3.80) (10일)

기로에 선 기업승계... “100년 영속기업 요원”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韓-핀란드 정상회담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2020년 3월부터 운행 개시
중소혁신·에너지 등도 MOU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포용성장 및 포괄적 글로벌 협력 등 논의를 진행했다. 포용성장은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때 양국이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외교·경제·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한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EU(유럽연합) 의장국을 수입하는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헬싱키(핀란드 수도)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한층 확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합의로 부산-헬싱키 노선은 2020년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제항공과는 “헬싱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다”며 “헬싱키 공항은 환승을 통해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고 운을 폈다. 이어 “(따라서) 지난 3년간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인

천-헬싱키 노선 탑승률이 90%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재차 “부산-헬싱키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영남권 주민들이 김해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지 않고 직접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해 유럽 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이외에 총 4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해각서는 ▲개정 항공협정(양국간 정기 항공편무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사 범위를 EU 회원국 항공사까지 확대), ▲중소기업 및 혁신분야 협력 MOU(헬싱키 내 스타트업 거점 센터 설치), ▲에너지 협력 MOU(신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등 분야 교류 협력), ▲경제협력프로그램(에너지·산업·수송·통신·재정·금융·섬유·건설·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 ▲성평등·가족 분야 협력 MOU(성평등 제도 관련 정책 교류)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핀란드 정상회담 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를 찾았다.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모두 도보로 이동하도록 밀집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단지에는 VTT(핀란드 국가기술연구소, 북유럽 최대 기술연구소)와 노키아(다국적 네트워크 설비 및 통신장치 제조업체) 등이 입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승준 기자 dn1114@

세계 VS 시민단체 충돌

당정, 관련제도 개편안 발표 앞두고
중소기업, 기자회견 열고 여론조성
사전·사후요건 등 대폭 완화 촉구
중견기업聯, 대상범위 1兆로 확대
시민단체 “富대몰림... 완화 안돼”

기업상속공제제도를 놓고 중소·중견기업 등 재계가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제도에 대해 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기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12일 관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몰림’이라면서 제도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구무언’인 대기업과 달리 기존 기업승계를 기업승계, 기술승계로까지 바꿔부르면서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중소·중견기업계와, ‘추가 완화는 불가하다’는 시민단체의 줄다리기에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한국중소기업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회 등 범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



범중소기업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계 주장>

중소기업계	중견기업계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출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 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중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한다 100억→500억원 확대 -중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3000억→1조 이상 확대 -공제금액 한도 500억→1000억원 -사후 관리 기간 10년→5~7년 단축 -정규직 근로자수(100~120% 유지) →총급여액 기준으로 변경 -업종 변경 제한 대폭 완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중견기업 30%)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통한 중소·중견기업 안정적 승계활동 지원

여출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전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기업상속공제 수준까지 맞춰야한다며 지원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1인 자녀로 각각 한정하던 대상도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1인 이상 자녀까지 넓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승계를 위한) 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정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정리를 하거나 아예 해외 PEF(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도 있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면서 “이참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들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상속’을 ‘기업승계’ 등으로 바꿔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엔 중소·중견기업계 모두 같은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중견기업계는 관련 혜택을 보는 대상 기업 범위를 기존 3000억원(연 매출 기준)에서 아예 1조원으로 늘리고, 공제금액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현행대로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견기업계에선 이를 1조원까지 늘리면 200여 개의 중견기업들이 포함돼 보다 원활한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토종 줄기세포 기술, 만리장성 넘었다

강스템바이오텍, 中 제프림사와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MOU

토종 줄기세포 기술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을 공략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중국에서도 상용화 될 예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제프림(Zephyrm) 본사에서 ‘인간 체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중국 내 상용화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그동안 상호 협력을 통해 중국 내 ‘줄기세포’가 새로운 치료제 모델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구 개발 미팅을 진행해 왔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더



욱 긴밀하게 협력해 한-중 공동 상업화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제프림은 중국 내 스타트업 형태의 줄기세포 신생 기업이다. 하지만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알렉스 장(Alex ZHANG)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 출신이며, 줄기세포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자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킨슨 병 등 뇌질환 관련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제프림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약 치료제 ‘퓨어스템AD주’,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템RA주’ 등의 중국 진출은 물론, 제프림이 보유한 뇌질환 관련 치료제 공동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프림은 신생기업이지만 대표 이사의 영향으로 중국과 학원 등 중국 내 영향력있는 다수의 학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파킨슨병 등 뇌질환 관련 연구 성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이번 MOU 체결은 향후 강스템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의 중국 시장 진출과 뇌질환 관련 치료제의 공동개발 등 중국 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